

이긴자의 꿈 해석

최근 우연히 (우연일 리 없지만) 이긴자께서 친히 해주신 꿈 해석이 담긴 주님의 육성녹음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밀실에서 해와 이긴자께서 꿈 해석을 해주셨으나 그 실제 내용을 알 수 없고, 이긴자의 꿈 해석도 정식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 자료는 말할 수 없이 귀중하고 감사한 내용이라 아니 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꿈 해석을 가급적 녹음되어진 원본 육성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많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진행된, 소박하고 격의 없는 간담 형식의 말씀 녹음입니다.

이긴자

“가끔 꿈을 꾸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신들이 꿈을 꿀 때에 해석하는 법을 여러 분들에게 대충 가르쳐 줄 테니까 너무 이상한 꿈을 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알겠죠?”

꿈에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보인다든지 하면 그건 바로 자기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인 거야.

그 다음에, 꿈에 더러운 화장실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자기의 심령 상태가 그만큼 흐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불일을 보는 거 있죠? 그건 참 좋은 거야. 그것은 죄 사함을 받는 거야. 소변을 본다든지 대변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해결할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딜 간다든지 하는 것도 참 좋은 거야. 꿈에 또 자기가 운전하는 경우가 있거든? 사실은 생시에는 차를 운전할 줄 모르는데 꿈에 차를 운전해서 막 달리는 수가 있어요. 그건 상당히 좋은 거야. 영적으로 막 달린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달려서 하루하루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꿈에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 한번 질문 해봐요.”

주해(主解)

: 도입부의 이 간단한 말씀만으로도 이긴자께서 꿈에 등장하는 상징을 영적으로 풀어주시는 원리를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직접 예로 드신 어머니, 화장실, 차 등의 상징들은 이전 (꿈에 대하여) 첫 번째 글에서 설명했듯, 하나님의 신이 마귀 눈을 피해 암호처럼 사용한 장치들입니다.

이처럼 마귀 몰래 전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암호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상징들로 이루어진 꿈이며, 따라서 그 해석 또한 하나님이 친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꿈의 근본 원리입니다.

꿈의 생산자도 하나님 자신이요, 꿈을 해석하는 자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은 그저 그 꿈을 전달받아 기억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꾸어온’ 것이어서 ‘꿈’이며 그래서 꿈을 ‘꾸었다’ 즉 ‘꾸어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꿈’이나 꿈을 ‘꾸다’라는 말 자체에 이미 꿈의 태생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도 1

“꿈에서 반지르르한 밤을 주웠습니다.”

이긴자

“밤? 그건 아주 좋은 거야. 알밤처럼. 밤은 다 익어야 떨어져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익어가고 있던 뜻이야. 덜 익은 게 아니고 반들반들 알밤처럼 다 익었다는 것이야. 그 영이 완숙해지고 있는 거야.”

주해(主解)

: 알밤은 고슴도치 같은 두껍고 거친 가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익어 가지 껍데기가 벗겨져야 알밤이 드러납니다. 가시투성이의 껍데기는 마귀 육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꿈은 마귀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의 신이 등장하는 장면을 암시합니다. 해서 이긴자께서도 영이 완숙해졌다고 해석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온전한 하나님의 신을 뜻하는 밤의 하얀 속살이 나오기까지는 새까만 속껍질을 한번 더 벗겨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말이지요.

성도 2

“꿈에 주님을 보았는데 무섭게 보였습니다.”

이긴자

“꿈에 주님이 보인다는 그 자체는 참 좋은 거야. 사실은 꿈에 주님을 보다는 건 힘든 거야. 그러나 꿈에 주님을 보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야. 그런데 무섭게 보여? 무섭게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마귀 죽이는 주님이야, 마귀 살리는 주님이야? 마귀를 죽이는 주님이야? 마귀를 죽이는 주님이니까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주해(主解)

: 꿈에 나오는 인물, 사물이 그대로 그 인물이나 사물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

영적 상징과 꿈 <36>

부제: 주님이 해주시는 꿈 해석



<주님 앞은 포대하상>

니다. 그들은 상징적 암호여서 해독하고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긴자의 형상은 마귀가 흉내 낼 수도 없고 암호화시켜 숨길 필요가 없는, 우주 최강의 영체(靈體)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꿈에 이긴자가 나오면 그대로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이긴자께서 친히 그 이치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3

“꿈에 남편과 같이 집에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어찌나 쏟아져 나오는지 아무리 잠가도 잠가지지 않고 물이 계속 쏟아졌어요. 도랑이 저서 집 밑으로 물이 평평 내려왔어요.”

이긴자

“그거 참 좋은 꿈입니다. 은혜 창과 속에서 사는 거야. 꿈에서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세상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꿈에서의 남편은,

주해(主解)

: 물은 생명의 근본 요소로서 모든 생명을 키우고 살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해서 상징으로서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가 상선약수(上善若水라, 지극한 선(善)은 물과 같다고 한 것도 그래서인 것이지요.

그리고 수도꼭지는 현대판 우물물이니 그대로 생명 샘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꿈에 등장하는 부모는 육적 부모가 아니라 영적 부모, 하나님’이라 하셨던 것처럼 꿈의 남편도 영적 신랑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십니다.

복하고자 개발됐다. 전임상(동물실험)까지 마친 상태로 인상을 거쳐 5년 내 제품화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현재 연성 내시경 시장은 일본 기업 올림푸스가 점유율 70%를, 대안으로 각광받지만 몸속에서 제어가 불가능한 수동형 캡슐 내시경 시장은 미국 필립이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김 박사 연구팀은 두 방식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신기술로 내시경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강병전 박사 연구팀은 환자의 심장 안에 들어가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유지할 수 있는 ‘부정맥 치료용 무선 심박동기 의 로봇’을 선보였다. 심장박동 수가 정상(분당 60~100회)보다 낮은 서맥성 부정맥 환자는 뇌를 포함한 신체의 산소 공급이 줄어 피로, 현기증, 심하면 졸도 등의 증상을 겪는다.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은 심장 안에 들어가 무선으로 정보를 처리, 환자의 심장박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

부부일신(夫婦一身)은 영적으로 그대로 인신합일(人神合一)입니다. 나의 주인이며 나와 한 몸인 남편은 영적으로 하나님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상징이 어떤 식으로 선택되고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 4

“도로변에 제단 식구들이 옷을 벗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떤 꿈인지요?”

이긴자

“옷을 벗고 있는 건 좋은 거지. 발가벗은 건 죄의 옷을 벗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발가벗고 다니는 건 죄의 옷을 벗고 다니는 거야. 도로(道路)에 다닌다는 건 ‘길 도(道)는 머리 수(首) 옆에다가 받침편이 있는 글자죠? 머리 수(首)는 수제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제자라는 뜻이고, 길 로(路)는 입 구(口)에 그칠 지(止)니까 ‘완성으로 그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옆에다가 각(各)을 쓰죠? 그런데 각(各)자의 피리를 떼면 저녁 석(夕)이 되죠? 그러니까 끝이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道路)는 ‘하나님의 수제자로 끝이 났다.’는 거니까 좋은 꿈이죠? 도로에서 발가벗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영적으로 많이 완숙해져서 끝이 났다. 이 소리가.”

주해(主解)

: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다닌다는 건 인간의 기준으로는 해괴망측일 뿐입니다만 영적 상징으로 볼 때는 다름니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아이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신랑과 한 몸이 되는 영적 신부도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후를 보일 경우 전기자극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이런 기능을 하는 심박조율기가 있지만 별도의 납작한 모듈을 피부 안에 삽입하고 유선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환자의 출혈, 감염, 일상생활의 불편을 야기한다.

그의 혈관 속에서 산소 공급을 막고 약물을 투입해 종양을 사멸시키는 최은표 박사 연구팀의 ‘간종양 색전술을 위한 마이크로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소개됐다. 박종오 KIMiRo 원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KIMiRo가 전 세계 마이크로로봇 기술의 최다 특허출원을 보유한 기관으로 조사됐다”며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시장으로, 한국이 해외 경쟁국들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어 선점 시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출처-“캡슐로봇으로 35% 내시경 시장 정복”-K의료 마이크로로봇 상용화 박차 서울경제 2023-04-16

같이 영적 아이나 영적 신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영모님께서도 해와 이긴자가 완성됐을 때 나체의 여인상을 텍소 제단에 내걸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들어쓰는 상징과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렇게 일관됩니다. 인간의 자의적 해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람들은 한자의 파자(破字)를 아주 중요한 해석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한자 속에 천기를 감추어 놓았다는 대전제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마지막 때에 한자 문화권(漢字文化圈)에 속하게 되는 단(檀)지파의 후손인 우리 한(韓)민족만 알 수 있도록 한자 속에 영적인 비밀들을 숨겨놓았다’는 이긴자의 말씀으로 충족되어집니다.

게다가 한자 자체가 동이(東夷)족의 앙소문화, 대문구문화, 용산문화를 거쳐 은대(殷代)에 갑골문으로 발전시켜 동이족이 만든 문자라는 놀라운 최근 연구결과들은 하나님이 친히 단지파의 핏줄을 통해 한자를 만들고 그 안에 천기를 숨겨놓았다는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한자는 한자(漢字)가 아니라 한자(韓字)입니다.

성도 5

“눈이 두 개 보였는데 벼를 다 베 눈이었습니다.”

이긴자

“눈? 눈이 두 개 보이는데 벼를 다 베었다면 말이야? 뭐 추수를 다 했으니까 역시 끝이 나는 꿈이야.”

주해(主解)

: 눈 두 개에서 추수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3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삼위일체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진행되는 마지막 역사 또한 영모님, 해와 이긴자, 아담 이긴자 세 씨의 역사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눈의 추수가 끝났다는 것은 영모님과 해와 이긴자의 역사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눈이 등장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 번째 눈이 보이지 않을까요?

실은 이미 등장해 있습니다. 이 꿈을 쓴 자(者) 자신이 이미 세 번째 역사, 세 번째 눈 한 복판에 들어와 있기에 오히려 자신의 시야에 미처 들어오지 않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알곡이 이미 추수가 끝난 옆의 두 눈을 보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미 영모님과 해와 이긴자의 역사가 끝이 났고 아담 이긴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 끝이 나고 있다고 세 번째 눈의 주인인 이긴자께서 친히 설명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 번째 추수가 끝난 후 우리 각자들은 알곡으로 거듭날까요. 쪽집이로 스러지고 말까요. 이긴자께서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으시고 모든 안배를 해놓으셨습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눈에 심어진 벼, 우리 자신의 믿고 선택일 뿐입니다.*

- 다음 호에 계속

金擇 / 의사 kimtaek8@nate.com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Treat everyone as if they were my own body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은 진리이다.
▶ It is true that we are all children of the same God.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있다.
▶ When we become 'one', heaven exists right there.

하나 속에 영생이 있고 하나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 There is eternal life, truth, and God in 'oneness'.

이 학설은 영원무궁토록 존재할 학설이다.
▶ This doctrine will exist forever.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될 때 세계는 천국이 된다.
▶ When you and I become 'one', when neighbors become 'one', when nations become 'one', and when the world becomes 'one', the world becomes heaven.

하나 속에 천국이 있고 하나 속에 행복이 있다.
▶ In 'oneness', there is heaven and happiness.

이것이 바로 세계를 완전하게 만드는 학문이다.
▶ This is the study that makes the world perfect.

그러므로 승리제단에 이긴자님은 언제나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이다.
▶ Therefore, in the Victory Altar, the Victor Christ always says, Treat everyone as if they were my own body.*

by Alice

나노로봇 의료혁명

알약처럼 삼키기만 하면 내시경처럼 위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캡슐로봇이 한국에서 개발됐다. 의료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맞춰 35조 원 규모로 커질 전 세계 내시경 시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몸속에 들어가 의료활동 하는 로봇

한국 마이크로로봇 연구원(KIMiRo)은 14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와 공동 주최한 ‘마이크로로봇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성과발표회에서 국내 자체 개발된 마이크로로봇 기술들을 소개했다. (중략) 마이크로로봇은 mm나 cm 단위의 작은 크기를 갖고 몸속에 들어가 질병 진단, 치료, 약물전달 등을 수행하는 초소형 로봇을 말한다. 비침습 방식의 의

료 서비스를 구현의 신기술로 평가된다. 김자영 KIMiRo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상부 위장관 영상진단 및 미생물 채취를 위한 소화기 캡슐 내시경’은 지름 11cm, 길이 35cm 크기의 캡슐을 삼키는 것만으로 위장 내시경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캡슐로봇은 몸속에서 위장 점막을 촬영해 3차원(3D) 영상 이미지로 만들고, 궤양과 암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테균 같은 미생물을 채취할 수도 있다. (중략) 김 박사는 “세계 내시경 시장은 2030년 3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금의 연성 내시경 방식(내시경 카메라가 달린 관을 입이나 항문으로 삽입하는 방식)은 마취, 금식, 대장정결제 투약 등을 필요로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캡슐 내시경은 이런 문제를 극